

원희룡 장관 “아이돌봄 클러스터로 신도시 보육환경 질 높일 것”

-17일 의정부 「아이돌봄 클러스터」 시범사업 현장 찾아 지역주민 의견 청취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7일(수) 오후 의정부시를 방문하여 보육 전문가, 지역주민 및 청년과 간담회를 갖고,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* 내에 조성 예정인 「아이돌봄 클러스터」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* (면적) 130만m², (규모) 1만 세대, (시행)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○ 「아이돌봄 클러스터」는 생활권 중심에 어린이집, 아이돌봄센터, 시간제 보육센터 등 각종 보육시설을 집적화하고, 공공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 센터, 민간 병원 및 학원 등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형 보육시설이다.

○ LH와 의정부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, 서울 등 원거리 출퇴근으로 돌봄 수요도 높은 30~40대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「아이돌봄 클러스터」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“이번 시범사업으로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다양한 공공 보육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, 돌봄 공백과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, 한부모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

○ “사업시행자인 LH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돌봄시설을 함께 설치·운영하기로 한 것은 도시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다”라고 평가하고,

○ “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,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, 보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청년 대표의 의견을 경청한 후 “돌봄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요 이용 계층인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

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 시범사업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’를 만드는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앞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보육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관계부처,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2023. 5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